

한글이 주는 행복

정재환

방송사회자, 문학박사,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

1934년 경주에서 표면에 모두 74자의 한자가 새겨져 있는 길이 30cm 정도 크기의 돌이 발견되었다. 1,500여 년 전,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남긴 이 돌은 당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유물인 ‘임신서기석’이다.

임신서기석은 ‘임신한 어느 여성이 아기를 갖게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아기를 밴 사연과 배 속의 아기가 성장하는 과정을 하루하루 꼼꼼하게 관찰 하며 기록한 글’이 아니고, 올해가 정유년인 것과 마찬가지로 기원 552년 또는 612년으로 추정되는 ‘임신년’에 두 젊은이가 학업에 정진하고, 나라에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새긴 것이다.



학창 시절에 책상 앞에 ‘정신일도 하사불성’, ‘4당5락’과 같은 경구나 ‘합격’과 같은 문구를 써 붙였던 추억이 있는 분들이라면, 중학교 때 이미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이라고 하숙방에 써 붙였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분이라면, 당시 두 젊은이의 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런데 과연 뭐라고 적었을까?

壬申年六月十六日 二人并誓記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해 기록한다.)

이 글은 한자로 적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어는 아니다. 당시에는 한국어를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한자를 빌려 적었지만, 이는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이다.

“I love you”는 영어다. 그런데 “I love you”라는 영어를 로마자가 아닌 한글로 “아이 러브 유”라고 적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글로 적었다고 해서 이 말이 한국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한글로 적었지만 이 말은 명백한 영어다. 뒤집어 생각하면, “나는 너를 사랑해”를 “Naneun neoreul saranghae”라고 로마자로 적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영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여전히 명백한 한국어이다.

임신서기석에 나오는 “今自三年以後 忠道執持 過失无誓”는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에 충도를 집지하고 과실이 없기를 맹세한다”라는 말인데, 이는 “지금(今)으로부터(自) 3년 이후에(三年以後)”라고 우리말 순서 그대로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만일 이것이 중국어라면 ‘지금으로부터’는 ‘今自’가 아닌 ‘自今’이 되어야 한다. 길게 이야기하면 머리가 좀 어지러워질 것이므로 여기까지만 하자. 여하간 분명한 것은 임신서기석에 적힌 글은 비록 한자로 적혀 있지만, 신라인들이 쓰던 우리말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이 겪어야 했던 술한 난제 중 하나는 바로 “글을 어떻게 적느냐?” 하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우리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적기 위해서는 남의 나라 글자인 데다가 어렵기 짝이 없는 ‘한자’를 배워 쓸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중학교 때, ‘하늘 천, 따 지, 집 우, 집 주, 짐을 현, 누를 황’을 뇌까리면서 천자문을 외우다가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아 깊은 좌절과 절망을 맛본 끝에 책을 집어던졌던 우울한 기억이 되살아난다.

학창 시절에 공부깨나 한 분들은 이두라든가 구결이라든가 하는 말들을

기억할 것이다. ‘이두는 설총이 만들었다’고 누군가에게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닐 것이다.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말을 적어야 했기에 한문에는 없는 토씨 같은 것을 따로 집어넣는 방식이 생겨났을 것이고, 그러한 표기 체계를 정리하고 표준화한 것이 바로 설총이었을 것이라고 해야 올바른 설명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설총이 당대의 석학이었음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한자가 전면적으로 우리 땅에 들어온 한사군 이후 말과 글자가 달라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에 큰 불편을 겪으며 고통받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것이다. 이두나 구결 등은 모두 글자 살이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결과였다. 하지만 ‘사이다’ 같은 속 시원한 해결책은 좀처럼 찾을 수 없었고, ‘고구마’처럼 답답한 세월이 무심히 흘러갔다.

1397년 4월 10일 경복궁 서쪽 인왕산 기슭 준수방에서 태종의 셋째 아들이 태어났다. 셋째였지만, 적자상속의 대원칙(?)을 깨고 조선의 4대 임금이 되었으니 이분이 바로 한글을 창제하여 한민족 천년의 숙원을 해결한 세종 대왕이다. 아니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내로라하는 학자들도 풀지 못한 난제를 풀 수 있었을까?

한자에만 의존해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완전히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판단한 데에서 세종의 천재성이 번뜩인다. 당시에는 아이큐 테스트 같은 것이 없어서 얼마나 머리가 좋은 분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훈민정음을 만든 솜씨를 보면 아이큐가 200은 넘었을 것이라 해도 다들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을까?

1443년에 창제된 훈민정음은 1446년에 반포되어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한자와 유교를 숭배하는 사대부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훈민정음은 서서히 이 땅의 역사를 바꾸기 시작했다. 훈민정음의 가치를 알아본 지식인들도 없지 않아, 정철의 <관동별곡>, 허균의 <홍길동전>, 김만중의 <구운몽>

같은 한글 문학이 꽃피우기 시작했으며, 특히 《청구영언》에 실려 있는 선조 때 명기 황진이의 <청산리 벽계수야>는 한글 시조의 백미 중 하나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따라
일도창해하면 도라오기 어려오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수여 간들 엇더리

목석같은 선비 벽계수도 황진이의 이 노래를 듣고는 나귀에서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니, 한글로 곧이곧대로 드러내는 감정의 호소력이 얼마나 잘 전달되었고 얼마나 강력했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어쩌면 소문으로만 듣던 황진이를 가까이에서 보고 얼이 빠져서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22대 임금 정조가 세손 시절에 외숙모에게 쓴 한글 편지도 유명하다. 정조는 “가을바람에 몸과 마음이 평안하신지 안부를 여쭙습니다. 빈 지가 오래되어 섭섭하고 그리웠는데, 어제 봉서를 받고 든든하고 반가우며 할아버님께서도 평안하시다고 하오니 기쁩니다.”라며 공손하고도 담백하게 안부를 여쭙고 있다.

정조가 심환지에게 쓴 한문 편지는 더욱 흥미롭다. 심환지에게 쓴 한문 편지에 ‘뒤죽박죽’이라는 한글이 등장한다. 한문 실력이 뛰어난 정조였지만, ‘마구 뒤섞여 엉망진창이 된 상태’를 가리키는 적절한 한자어를 찾을 길이 없고, 설령 비슷한 말을 찾는다 하더라도 ‘뒤죽박죽’이라는 우리말이 아니면 그 느낌이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뒤죽박죽’ 네 글자를 한글로 적은 듯하다. 한글이 아니면 온전히 그 의미를 살려 표현할 수 없는 우리말들을 한글을 가짐으로 해서 비로소 맘껏 표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훈민정음, 즉 한글의 탄생은 한자를 몰라서 지식과 학문의 세계에서 격리

된 채 살아온 이 땅의 민초들에게 인민 해방을 알리는 천지개벽의 복음이었다. 사대부를 비롯한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한글을 배움으로써 하고 싶은 말을 글로 남길 수 있게 되었고, 지식과 학문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한글 혁명, 문화 혁명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리고 보면 훈민정음 서문에 담긴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민본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국민 주권의 세종식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신 나의 어머니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다. 그 시대를 사신 많은 분들이 그랬겠지만, 어머니는 한글조차 잘 읽지 못하셨고, 아버지와 함께가 아니면 멀리 외출하시는 것도 삼가시는 눈치였다. 그러던 어머니가 뒤늦게 홍제동에 있던 한글 교실에 다니시며 어렵사리 한글을 떼신 사연은 죄 많은 자식에게는 되새길수록 가슴이 미어지는 아픈 기억이다. 그래도 늦게나마 길거리에 걸린 간판들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시면서 문맹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신 것은 실로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문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지금의 세대는 문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준 한글의 고마움과 한글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실감키 어려울 것이다. 나는 중학교 때까지 길거리에 걸린 한자 간판들 때문에 무척 고생했다. ‘한양상회’라고 쓴 것인지 ‘한성상점’이라고 쓴 것인지 분간을 못 해 문 앞에서 얼굴을 붉히며 고민했던 순간순간의 기억들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 명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다. 우리 사회가 한자에 계속 매달려 있었다면, 지금도 많은 이들이 한자 문맹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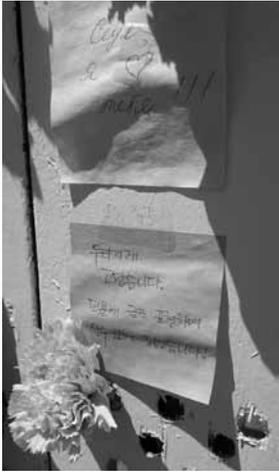
그럼에도 국한문 혼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여전히 한자가 국어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글로 ‘사기’라고 써 놓으면 ‘사기그릇’의 사기인지, 남을 속이는 사기인지, 자신감이 충만한 기운을 뜻하는 사기인지, 아니면 역사책을 뜻하

는 사기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한탄한다. ‘금연’을 한글로 쓰니 ‘이제(今) 담배를 피우시오(煙)’라고 이해하고 금연이란 글귀 아래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禁煙’이라고 적어야 한다는 궤변은 평생 잊을 수 없다.

날말을 단순히 글자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날말이 지닌 함의와 그 날말이 쓰인 맥락과 상황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임을 안다면, “사기에 적힌 사실들이 모두 진실은 아니다”라고 말할 때의 사기가 사기그릇이나 사기꾼의 사기가 아니라는 것쯤은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대학생이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쓰지 못한다고 무식하다고 호통을 치는데, 이름을 한자로 쓸 일이 거의 없으니, 딱히 기억할 이유도 없지 않을까? 요즘 학생들은 효용성이 떨어지는 한자 지식보다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많은 시간과 정열을 투자하고 있으며, 결코 무식하지 않다.

세종이 태어나신 1397년의 4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5월 15일이다. 이날이 스승의 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겠지만, 세종 대왕 나신 날을 스승의 날로 삼게 되었다는 사연마저 아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스승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기념일을 처음 제정한 것은 청소년적십자였는데, 이 기념일을 정례화하면서 온 백성에게 글자를 만들어 주시고 문명의 빛을 주신 한민족의 큰 스승인 세종의 생신을 스승의 날로 정한 것이다.

한글문화연대는 해마다 세종 대왕께 꽃을 바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광화문 광장 세종 대왕 동상 앞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많은 이들과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까지 세종 대왕께 꽃을 바치고 절을 하고 감사의 편지를 썼다.



사랑합니다. 세종 대왕 만세
 세종 대왕님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세종 대왕님 생신 축하합니다.
 훈민정음 짱짱맨
 한글 너무 자랑스러워요.
 proud of King 세종 대왕
 우라지게 고맙습니다. 덕분에 글로
 표현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으면 ‘우라지게’라는
 표현을 썼겠느냐마는 ‘우라지게’는 ‘오

라를 지는 것처럼 잘못되거나 나쁘게 된다는 뜻으로, 몹시 마음에 맞지
 아니함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이다. 그러니까 과거 ‘너무’라는 말을 부정적으
 로 사용하였던 것처럼 이 ‘우라지다’라는 말은 안 좋은 상황에서 써야 한다.

이 점을 간과하고 이렇게 아무 데나 ‘우라지게’를 갖다 쓰면 ‘너무’와
 마찬가지로 훗날 ‘우라지게’의 뜻을 좋은 의미로도 쓸 수 있다고 허용해야
 하는 사태가 또 발생할지도 모른다.

언중의 의사나 요구를 받들어 낱말의 의미를 바꾸거나,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바람직한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언어
 규범을 존중하지 않는 언중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은 우리말의 질서를 훼손
 하여 언어 사용자들 사이의 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것이다.

게다가 낱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2015년에 ‘이쁘다’라는 말을 표준
 어로 인정을 했다. 그런데 ‘애기’, ‘챙피하다’, ‘아귀째’, ‘방구’ 같은 말들은
 표준어인 ‘아기’, ‘창피하다’, ‘아귀째’, ‘방귀’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도 왜 표준어의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일까?

어느 분야에나 변화는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헌법도 9차

레나 바뀌었다. 말법도 필요하면 바꾸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언어 규범을 존중하고 지키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작 한국인들은 언어 규범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인들은 외국어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우리말에는 둔감하거나 관심조차 없다.

한국인 일본어 교사는 “たばこ一本(다바코잇폰)”이라고 일본말은 정확히 가르치면서도 정작 한국어는 “담배 한 까치”라고 한다(‘담배 한 개비’가 옳은 표현임.). 영어 교사는 까다로운 th나 f, r과 l의 정확한 발음을 힘주어 강조하면서도, 정작 ‘닭을’을 [달글]이 아닌 [다글]이라고 발음하거나, fare와 price를 구분해 설명하면서도 “제주도까지 비행기값이 얼마나?”라고 묻는 멍텅구리 같은 모습을 보인다. 비행기를 사는 것이 아니므로 ‘비행기값’이 아닌 ‘비행기 값’이라고 해야 한다.

종종 ‘한글 파괴’라는 말이 들려온다. 하지만 그 사례를 살펴보면 이는 한글 파괴라기보다는 ‘철자법 무시 현상’ 혹은 ‘철자법 해제 현상’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과거에 많이 쓰던 ‘아햏햏’이나 ‘안뇽, 안냐세여’ 등이 떠오르는데, 최근 들어 이런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초성만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대유행이다. ㅇㅋ=오키(오케이), ㄱㅅ=감사, 그리고 편지 끄트머리나 인터넷에서 대화하다가 퇴장할 때 많이 사용하는 ㄱㅂ(꾸벅) 같은 표기들이다.

역사→역씩, 어려운→으려운, 수업→수읍, 명료한→멩료한, 평가→뽕까, 성균관대→승균관데, 발전→발죤 등등 받아쓰기 시험을 본다면 빵점을 면키 어려운 표기의 유행도 걱정스럽고, 나쁜 의미에 붙이는 접두사 ‘개-’를 ‘개망신’ 같은 단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개좋아’, ‘개맛있어’, ‘개신나’처럼 쓰는 것에는 어안이 병병해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말보다 영어를 선호하는 현상은 불치병일까, 난치병일까? ‘영플라자’, ‘파워스테이션’, ‘가든’ 같은 말들은 이미 고전이 된 지 오래이지만, 백화점의 ‘카드살롱’이나 ‘크로스존’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여기 모여라’, ‘job

아라’, ‘출산 크레디트’는 무엇인가? “크레디트란 말은…… 크레디트 카드 외에는 거의 써 보질 않아서요.”라는 30대 주부의 하소연에 겹쳐히 귀 기울여야 한다.

세계화의 풍랑이 일면서 어지간한 기관의 이름은 대부분 영문 약자로 바뀐 지 오래다. KT&G, KORAIL, KTX, NH, KT, Seoul Subway, K-Water 등은 그동안 하도 요란하게 홍보를 해 댄 바람에 뭐가 뭔지 조금은 알게 됐지만, SH, aT, KEPCO, KOPEC 같은 이름은 도무지 뭐 하는 곳인지 아직도 알쏭달쏭 오리무중이다.

버스가 이미 떠났다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것인가? 국적 불명의 영어 이름보다는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철도, 한국고속철도, 농협, 한국통신, 서울지하철, 한국수자원공사가 좋고, 서울주택,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 한국전력기술 같은 이름이어야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살고 국민과도 더욱 잘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한글이 우리에게 준 행복은 문맹으로부터의 해방, 신분 해방, 문화 혁명이었고, 해방 이후 등장한 한글세대가 이룬 정치와 경제의 눈부신 발전도 한글이 준 행복이다. 지구촌이 일일생활권에 들고, 술한 나라들과 많은 것을 주고받고 공유하며 섞이는 오늘날에도 우리말과 한글을 애용함으로써 한글이 주는 행복을 새롭게 발견하고 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글 사랑은 세종의 후손이자 한글의 주인인 한민족의 자기표현이자 우리의 권리와 행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이기 때문이다.

